

매출증가 미미하나 조정기 마무리된 듯 99년 프랜차이즈·양산업체 영업 실적 감사보고서

■ 취재 / 손인수 insu21@mbakery.co.kr

99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업체와 양산업체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각각 5%, 0.7%에 그쳐 담보상태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익도 98년에 이어 마이너스를 지속했고, 당기순이익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소폭 흑자를 기록한 반면 양산업체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크라운베이커리, 삼립식품, 기린 등 대형 업체의 잇따른 부도 여파에 따른 것으로 99년을 기점으로 이들 업체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해 올해 영업실적은 다소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체 전체 매출 5% 성장에 그쳐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업체별 99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파리크라상(대표 김영덕), 크라운베이커리(대표 윤영달), 신라명과(대표 홍평우), 뉴욕제과(대표 김정기) 등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2,601억원으로, 98년보다 5% 성장하는 데 그쳤다(표1 참조).

업체별로 살펴보면 파리크라상이 98년보다 13% 늘어난 1,259억원의 매출을 올려 프랜차이즈 업체 전체 매출증가율을 주도했다. 이 업체는 또한 경상이익, 당기순이익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특히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34억원이나 늘었다. 이같은 결과는 영업실적이 양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33억원 가량의 (주)샤니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특별이익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크라운베이커리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 실적을 올린 반면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의 마이너스 폭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대손상각비가 전년에 비해 무려 65억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인데, 대손상각비란 결산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이 업체 한 관계자는 “계열사의 보증 채무는 물론 단기적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을 모두 대손상각비로 처리해 경상이익 및 당

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며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에 성공적인 구조조정에 힘입어 약 3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신라명과는 전년보다 매출증가율이 -4.7%로 나타났고 경상이익도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의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98년과 비슷한 수준인 2억 7,631만원으로 나타났다.

뉴욕제과는 매출증가율이 -2.3%로 나타났고, 매출감소율에 비해 경상손실이 대폭 늘어났다. 이 또한 지난해 재무제표를 정리하면서 불량채권을 대거 대손상각비로 처리해 영업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약 7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자금난 완화를 위해 토지와 건물을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함으로써 특별이익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양산업체, 매출증가 미미하나 손실규모 크게 줄어

샤니, 삼립식품, 기린, 서울식품 등 양산 4사는 지난해 총 4,576억원의 매출을 올려 98년보다 약 0.7% 성장하는 데 그쳤고 경상손실, 당기순손실도 각각 17억원, 35억원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그러나 손실 규모가 경상손실 140억원, 당기순손실 190억원에 달했던 98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호전된 결과라는 평가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샤니(대표 한정남)는 지난해 98년보다 11% 신장한 2,007억원의 매출을 올려 업계 1위를 고수했다.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도 각각 93억원, 64억원으로 98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삼립식품(대표 김이중)은 98년보다 4.3%가 줄어든 1,43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상손실 및 당기순손실 규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린(대표 노 황)도 매출이 805억원으로 6.7% 줄었지만 경상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크게 개선됐다.

서울식품(대표 서성훈)은 매출 감소율이 12.2%로 가장 높았고 경상손실 및 당기순손실 규모도 98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이는 제빵사업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도 지난해 저공해성 중질 에멀션 연료 제조 사업에 진출하는 등 신규 사업인 환경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기 이후 본 궤도 진입 여부 주목

결국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체 및 양산업체의 영업실적은 매출 증가율이 98년보다 소폭이나마 증가했고,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이는 구조조정을 계기로 재무제표를 정리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영업 부진의 결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들 업체들이 비교적 훌륭한 상태에서 수익관리에 나섭에 따라 올해 영업실적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산업체는 전체 매출이 지속적으로 담보 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니를 제외한 3개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지난해 구조조정을 거친 이들 업체들의 영업을 올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할 경우 제2의 부도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B]

〈표1〉 프랜차이즈업체 99년 손익계산서

업체명	매출액(억원)		경상이익(만원)		당기순이익(만원)	
	98년	99년	98년	99년	98년	99년
파리크라상	1,113	1,259	41억 9,763	52억 5,408	25억 9,934	59억 6,171
크라운베이크리	812	817	-7억 4,641	-69억 9,825	-6억 6,404	-65억 7,899
신라명과	418	398	9억 5,151	3억 2,877	3억 4,340	2억 7,631
뉴욕제과	130	127	-13억 5,037	-43억 1,004	-13억 4,770	7억 8,154
계	2,473	2,601	30억 5,236	-57억 2,544	9억 3,100	4억 4,057

- 파리크라상의 회계연도는 98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이고 이를 편이상 99년 매출로 산정했기 때문에 자사발표 99년 매출액과 차이가 있음. 나머지 업체의 회계연도는 99년 1월부터 12월까지임.
- 고려당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에서 (-)로 산출된 것은 경상손실, 당기순손실을 뜻함.

〈표2〉 프랜차이즈업체 성장성 비율

업체명	매출증가율(%)		총자산증가율(%)		경상이익률(%)		당기순이익증가율(%)	
	98년	99년	98년	99년	98년	99년	98년	99년
파리크라상	20.1	13	41.5	22.3	82	25	79.3	129
크라운베이크리	-15.5	1	-15.7	-2	적자감소	적자증가	적자감소	적자증가
신라명과	-8.7	-4.7	-22.9	24.4	1,039.9	-65.4	127.2	-19.5
뉴욕제과	-7.8	-2.3	-9.4	-59	적자전환	적자증가	적자전환	흑자전환

〈표3〉 양산업체 99년 손익계산서

업체명	매출액(억원)		경상이익(만원)		당기순이익(만원)	
	98년	99년	98년	99년	98년	99년
사니	1,808	2,007	33억 8,861	93억 3,128	22억 9,677	64억 139
삼립식품	1,503	1,439	-126억 1,979	-38억 5,282	-136억 3,803	-38억 5,282
기린	863	805	-41억 2,144	-32억 3,211	-70억 1,818	-21억 964
서울식품	370	325	-6억 6,555	-39억 6,626	-6억 6,555	-39억 6,626
계	4,544	4,576	-140억 1,817	-17억 1,991	-190억 2,499	-35억 2,733

〈표4〉 양산업체 성장성 비율

업체명	매출증가율(%)		총자산증가율(%)		경상이익률(%)		당기순이익증가율(%)	
	98년	99년	98년	99년	98년	99년	98년	99년
사니	6.5	11	31.2	25.5	155.2	175	198.7	179
삼립식품	0.6	-4.3	-2	11	적자감소	적자감소	적자감소	적자감소
기린	-18.5	-6.7	-19	27.5	적자증가	적자감소	적자증가	적자감소
서울식품	-5	-12.2	-7.4	-7.3	-383.2	적자증가	-373.4	적자증가